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지음 | 최인철 옮김

<사피엔스 스튜디오>, <어쩌다 어른>
제작진의 프리미엄 강독쇼

책 읽어주는
나의서재

프리미엄 강독쇼

동서양 차이에 대한
명쾌한 분석

방송도서 tvN
STORY

[화] 저녁 7시

김영사

THE GEOGRAPHY OF THOUGHT
by Richard E. Nisbett

Copyright ©2003 by Richard E. Nisbett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4 by Gimm-Young Publishers, Inc.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

This translation of The Geography of Thought, first published in 2003,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Richard E. Nisbett through Brockman, Inc.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지음

김영사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생각의 지도

저자_ 리처드 니스벳
역자_ 최인철

1판 1쇄 발행_ 2004. 4. 13.
1판 52쇄 발행_ 2015. 1. 27.

발행처_ 김영사
발행인_ 김강유

등록번호_ 제406-2003-036호
등록일자_ 1979. 5. 17.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문발동) 우편번호 413-120
마케팅부 031)955-3100, 편집부 031)955-3250, 팩시밀리 031)955-3111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Brockman, Inc를 통한 저자와의
독점계약에 의해 김영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값은 유표지에 있습니다.
ISBN 978-89-349-1448-8 03300

독자의견 전화_ 031)955-3200
홈페이지_ <http://www.gimmyoung.com>
이메일_ bestbook@gimmyoung.com

좋은 독자가 좋은 책을 만듭니다.
김영사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자 서문|

나는 가끔 다른 저자들의 서문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자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큰 공헌을 했을까 하고 궁금해 하곤 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이들은 정말로 이 책의 탄생에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그중 몇 분은 결정적인 공헌을 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지난 연구 경력을 돌이켜볼 때, 나의 가장 뛰어난 대학원생들은 최근 몇 년간 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학생들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상당수의 실험들은 이 학생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최인철, 메리언 데이비스, 트레이 헤든, 지리준, 루잔, 다카히토 마사다, 마이클 모리스, 아라 노렌자얀, 핑카이핑, 제프리 산체스-버크스. 또한 수잔 앤더슨, 스콧 애트런, 페트리샤 칭, 로렌스 허슈펠드, 필립 아이반호, 징치칭, 고든 케인, 시노부 기타야마, 헤이즐 마커스, 도널드 먼로, 데니스 파크, 리 로스, 에드워드 E. 스미스, 스티븐 스티치, 프랭크 예이츠 등과의 토론을 통하여 많은 지적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동양과 서양에 대한

나의 이해에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었다.

또한 리처스 캐시디, 차운아, 도브 코헨, 조 헨리히, 피터 카첸슈타인, 조엘 쿠퍼맨, 대린 리먼, 데이비드 류, 아바샤이 마르갈리트, 유리 미야모토, 랜돌프 네스, 유 니야, 파올로 소사 등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의 초기 원고들을 꼼꼼히 읽고 조언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리 프레스(Free Press)의 필립 레퍼포트는 전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더 명료하고 읽기 쉽게 편집해주었고, 필립 멧케프는 원고 교정을 훌륭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 책의 에이전트를 맡아준 존 브로크먼과 카티나 멧슨에게도 감사한다. 일반 대중에게 과학을 알려려는 그들의 진지한 노력 덕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연구를 진행하고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많은 학술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행운을 누렸다. 특히 이 연구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문화와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미시간대학 산하 IS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넉넉한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ISR의 스태프인 낸시 엑셀비, 메리 컬린, 로라 레이놀즈 그리고 러셀

세이지 재단의 에릭 로마조프는 연구를 진행하고 집필하는 모든 과정을 항상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그들 덕분에 불필요한 잡무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자칫 지치기 쉬운 작업을 늘 유쾌하게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 아내 수잔은 이 책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아들 매튜, 딸 사라와 함께 내가 연구를 하는 것에서 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었다. 특히 아들 매튜는 나 못지않게 동양 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매튜에게 바친다.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존재하는 사고의 차이에 대하여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나는 무척 망설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책을 쓰더라도 내가 서양인인 이상,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양인들에게 불쾌하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을 비판하고 동양인들의 사고 방식을 더 호의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많다 할지라도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인종적으로 민감한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동양인들에게 언짢은 일일 수 있다. 특히나 이 책이 전문가들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의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 책을 읽어본 동양인들과 동양계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이 책의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이 책을 수업 교재로 사용한 교수들에 따르면 동양 학생들과 동양계 미국 학생들이 이 책의 내용이 그들의 경험과 매우 일치한다고 만족해 했다고 한다. 어떤 학생들은 이 책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늘 유럽계 미국인들과 자신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절감하

고 있었고 자신의 사고 방식이 더 열등하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 서양 독자들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연구나 이론은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독자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계속해서 수정 보완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한국어판이 나오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고마운 일은 이 책의 번역이 다른 사람이 아닌 최인철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최 교수는 미시간대학에서 나의 대학원생으로 함께 연구를 수행했으며 많은 연구들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국제적으로 촉망받고 있는 소장 학자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진 만큼 한국어판도 영어판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지적 도전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03년 겨울
미시간 주 앤아버에서 리처드 E. 니스벳

저자 서문 5
한국어판 저자 서문 8
서론 13

1

동양의 도와 서양의 삼단논법 25

고대 그리스와 중국의 철학, 과학, 그리고 사회 구조

2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 서양의 홀로 사는 삶 51

현대 동양인과 서양인의 자기 개념

3

전체를 보는 동양과 부분을 보는 서양 81

세상을 지각하는 방법의 차이

4

동양의 상황론과 서양의 본성론 107

동양과 서양의 인과론적 사고

5

동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동양과 명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서양 133

동양의 관계와 서양의 규칙

6

논리를 중시하는 서양과 경험을 중시하는 동양 157

서양의 논리와 동양의 중용

7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 그 기원은? 185

경제 구조와 사회적 행위

8

동양과 서양, 누가 옳은가? 201

실생활에 주는 교훈

에필로그 |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 충돌할 것인가, 통일될 것인가? 223

역자 후기 231

참고 문헌 234

서론

수년 전에 나는 중국 출신의 한 대학원생과 함께 사회심리학적 주제와 인간의 사고 방식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생은 “교수님, 교수님과 저의 차이점이라면, 저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수님은 세상을 직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라고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당혹스러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했다. “중국 사람들은 사물은 늘 변화하며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주 많은 사건들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물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을 떼어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서양 사람들은 훨씬 더 단순하고 기계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그림보다는 부분적인 사물 그 자체, 혹은 사람 자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나는 그의 말에 회의적이었다. 서양의 경험주의 철학자들인 흄(Hume), 로크(Locke), 밀(Mill)로부터 현대 인지 과학자들에게 이르는 서구의 지적 전통을 물려받은 나로서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 관한 한 철저한 보편주의자였다. 나는 사람들이 문화에 상관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지각한다고 믿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보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인지 과정을 가지고 있다. 마오리족의 지도자이든지 현대의 벤처 사업가이든지 지각, 기억, 인과분석, 범주화, 그리고 추론 과정에 있어서 동일하다.
- 만일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신념 체계가 다르다면,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다른 측면을 보거나 아니면 단순히 다른 내용을 교육받았기 때문이지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 고등 추론 과정은 논리학의 형식 논리에 따른다. 예를 들어, 모순된 것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추론은 “어떤 명제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라는 형식 논리에 따른다.
- 인간의 사고 과정 자체는 사고의 내용과는 독립적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고 과정이 작용한다.

그 중국 학생을 만나기 약 12년 전에 나는 스탠퍼드대학의 리로스(Lee Ross) 교수와 함께 『인간의 추론 Human inference』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은 ‘서양인의 추론’도 아니고 ‘미국 대학생의 추론’도 아닌, 분명 ‘인간의 추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람들이 문화가 달라도 동일한 추론 규칙을 사용한다고 믿었기에 감히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인간의 추론 능력이 교육에 의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했었다. 전형적인 보편주의자였던 나는 아무리 오랫동안 통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특정 분야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론 방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는 이 연구들에서 그 반대의 걸림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통계학 수업을 몇 개만 들은 학생들도 일상 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범하는 추론의 오류를 덜 범했다. 그들은 야구에서 ‘2년차 징크스’라고 불리는 현상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통계적인 현상인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 사용하는 ‘면접’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매우 적은 수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재미없는 영화를 계속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극장을 나와야 할 것인지를 문제에서부터 대외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추론 방법과 실제 행동이 바뀔 수 있음을 이 연구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일종의 문화의 힘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버클리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핑카이빙이라는 그 중국 학생의 주장을 검증해보기로 했다. 교육에 의해서 성인들의 추론 방식이 바뀔 수 있다면,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정한 사고의 습관을 가지도록 끊임없

이 사회화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사고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곧장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에 대한 철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의 저술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핑카이핑의 주장이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 사고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문 분야의 학자들은 서양인들, 즉 주로 유럽인, 미국인, 그리고 영연방 계통 국가 사람들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과 매우 다른 사고 체계를 수천 년 동안 유지해왔음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서양인들이 물리적 사물, 동물, 사람을 모두 포함한 사물의 행동을 설명할 때 아주 분명한 규칙들에 의거한다고 한결같이 가정하고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범주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범주를 알게 되면 어떤 사물이 속하는 특정 범주를 지배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그 사물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 형식논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하여 동양인들은 사물들을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들에게 세상은 매우 복잡한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관련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제 해결에서 형식논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미숙한 인간으로까지 간주된다.

심리학자인 나에게 인간의 사고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들은 그 시사하는 면에서 가히 혁명적이었다. 만일 인문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의 그러한 주장이 옳다면, 심리학자를 비롯한 인지과학자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인문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은 정확한 용어로 표현만 안 했을 뿐 사실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근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민속 형이상학(세상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사고 과정은 '사고의 내용' 혹은 민속 형이상학과 분리될 수 없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사고 방식을 사용한다.

동양과 서양의 사회 구조에서의 차이, 그리고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자기 개념에서의 차이는 그들이 사고 과정과 사고 내용에 서 보이는 차이와 일치한다. 즉, 동양 사회의 집합주의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특성은 세상을 보다 넓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 어떤 사건이든지 수없이 많은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같은 논리로, 서양 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은 개별 사물을 전체 맥락에서 떼어내어 분석하는 그들의 접근, 사물들을 다스리는 공통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 따

라서 사물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과 통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고의 체계에서 정말로 다르다면, 태도, 신념, 가치, 선호와 같은 심리적 특성들에서 나타나는 문화간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생각의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그 중국 대학원생의 도전과 문화심리학에 대한 나의 관심, 그리고 동서양 차이에 대한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하여 나는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미시간대학의 대학원생들과 중국의 베이징대학, 일본의 교토대학, 한국의 서울대학, 그리고 중국의 심리 연구소와 함께 많은 체계적인 실험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는 실제로 큰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연구 증거들은 심리학 외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들에 대한 경험적 지지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보여주었다. 많은 조사 연구와 관찰 연구들은 사고의 차이와 맥을 같이 하는 사회 제도상의 차이도 밝혀냈다. 이전의 연구보다 더 진일보한 점이라면 우리가 수행한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이며, 이러한 차이들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두

문화 사이의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는 이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존재 방식과 사고 방식에서의 동서양 차이를 설명하는 우리의 이론은 그동안 교육학자, 역사학자, 과학철학자, 심리학자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았던 다음과 같은 많은 의문점들에 답을 제시해줄 수 있게 되었다.

과학과 수학 왜 고대 중국에서는 연산과 대수학은 발달했지만 기하학은 발달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고대 그리스는 기하학에서 눈부신 진보를 보였을까? 현대의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의 최첨단 발전은 왜 서양에서 더 두드러질까?

주의 과정과 지각 과정 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다 사건들 간의 관련성을 잘 파악하는 것일까? 반대로 주변 환경에서 개별 사물을 분리하는 과제에서는 왜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더 어려워할까?

인과적 추리 왜 서양인들은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적인 요인은 무시하고 그 사람의 내부 특성만을 강조할까? 왜 동양인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지'라는 후견 지명 효과를 강하게 보일까?

지식의 조직화 왜 서양의 유아들은 동사보다는 명사를 더 빠른 속도로 배울까? 그 반대로 왜 동양의 유아들은 명사보다는 동사를 더 빨리 배울까?

추론 과정 왜 서양인들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형식논리를 자주 사용할까? 왜 동양인들은 명백하게 모순되어 보이는 두 주장들을 동시에 받아들일까?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이 각각 특징적으로 범하는 추론의 실수는 무엇일까?

동양과 서양의 사고에 존재하는 이렇듯 큰 차이의 기원은 무엇일까? 생물학적 요인일까, 그것도 아니면 언어의 차이일까? 경제 구조의 차이일까 아니면 사회 구조의 차이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교육의 차이일까? 이러한 차이들은 수백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동양과 서양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내는 차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한 사회적 행위들은 특정한 세계관을 가져오고, 그 세계관은 특정한 사고 과정을 유발하며, 그 사고 과정은 역으로 원래의 사회적 행위들과 세계관을 다시 강화시킨다. 이런 항상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를 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이 서로의 사고를 이해함으로써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동양인들은 지난 500년 동안 서양이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우위를 배경으로 지적인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이제 이 책을 읽은 서양의 독자들도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

신의 방법과는 다른 또 하나의 타당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접근법을 점검하고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양의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하여 서양 사고의 특징을 알고 각 사고의 좋은 면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물론 동양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미 서양식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서양 독자들보다는 이 책으로부터 배울 점이 덜할지도 모르겠다.

동양과 서양 사이의 매우 상이한 사고 체계가 과거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왔고 지금도 그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역사적·철학적 증거들과 함께 민속지학, 조사 연구, 실험실 연구들과 같은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총 동원하였다.

1장에서는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동서양 사고의 전형적인 예로 들면서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의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사회적 행위, 특히 자기 개념에서 두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소개했다. 이 책의 핵심은 사실상 3장부터 6장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장들에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에 근거하여 현대의 동양인과 서양인이 지각하고, 사고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들을 기술하였다. 7장은 그러한 문화적 차이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 8장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가 심리학, 철학, 그리고 일상 생활의 분야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동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통합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으로 수렴될 것인지에 대해 논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밝혀둘 점이 있다. 이 책에서 '동양'이라 함은 '동아시아', 즉 중국과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주로 칭한다. 또한 '서양인'은 주로 '유럽 문화권'의 사람들을 칭하고, '유럽계 미국인'은 미국 내에서 동양계가 아닌 모든 인종, 즉 백인, 흑인, 라틴아메리카계를 포함한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을 하나로 묶어서 취급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사한 문화적 영향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미국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동양계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인종들과 함께 미국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행한 몇몇 연구들에서 그들은 미국인보다는 동양인과 더 유사한 사고 방식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오해를 미리 풀고자 한다. 상당수의 독자들은 아마도 동양 내의 문화 차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동양인'으로 논하는 것이 불쾌할지도 모른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은 특히 못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밝혀둘 점은 편의상 그렇게 칭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동양 내에도 많은 하위 문화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문화간 차이가 존재한다. 서양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혹은 '서양'이라는 다소 단순한 이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양 내에서도 문화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양 내의 국가들은 서양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서로 더 유사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사한 예를 언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유럽 언어들 사이에는 서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동아시아 언어들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인도유럽계 언어와 동아시아 언어 사이에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에 대하여 충분히 논할 수 있고, 그러한 논의는 실제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인 것이다.

1장

동양의 도와 서양의

삼단논법

The Geography of Thought :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동양의 도와 서양의 삼단논법



유교적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
되지 않은, 즉 실용적이지 않은 순수한 의미
에서의 '알'이라는 것은 없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0억 정도가 고대 그리스의 지적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
면, 그보다 훨씬 많은 20억 정도는 고대 중국의 지적 전통을 물려받았
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고대 그리스와 중국은 인간을 바라
보는 관점과 사회 구조 면에서 매우 달랐을 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명
에 있어서도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차이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큰 차
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

그리스의 에피다우루스(Epidaurus)라는 곳에 가면 약 1만 4,000명
을 수용할 수 있는 고대 극장이 있다. 이 극장의 주위는 산과 나무
들이 어우러져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 극장의 음향
시스템은 무대에서 종이 한 장을 구기면 극장 어디에서나 그 소리
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장 시
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에 살
았던 그리스인들의 문화에 대한 열정이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
는 연극이나 시 낭송을 보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마다
하지 않고 이 극장으로 달려와서 새벽부터 황혼까지 며칠씩 공연
을 관람했다고 한다.

요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문명들 중에서 유독 그리스인들만이 예술적인 즐거움, 오직
그 하나를 위해 먼 여행도 감행할 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 사회에
서 발견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올림픽이 열릴 때가 되면 그
리스인들은 선수나 관중으로 참가하기 위해 벌이고 있던 전쟁마저
도 중지했다는 점이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유
독 강했다. 그 시대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었

고, 왕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든 개인에게 그러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일이었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의 삶은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행복'에 대한 그들의 정의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스인들이 정의하는 행복이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강한 신념은 개인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독특한 특성과 목표를 가진 상호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했다. 이 점은 기원전 8세기(혹은 기원전 9세기) 작가인 호메로스(Homeros)의 작품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디세이아 Odyssey』와 『일리아스 Ilias』에 등장하는 신이나 인간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였던 고대 그리스 문화는 자연스레 논쟁의 문화를 꽃피웠다. 호메로스는 남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근거로 전사로서의 전투 능력과 논쟁자로서의 논쟁 능력을 들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개 평민일지라도 왕의 의견에 반기를 들고 왕

과 논쟁을 벌일 수 있었고, 설득을 통하여 군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논쟁은 저자거리에서도, 의회에서 벌어졌으며 심지어는 위계 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도 일어났다. 다른 문화권에서와는 달리 그리스에서는 국가의 중대사에서부터 매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공개적인 논쟁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대 그리스에서 독재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사 독재자가 득세하더라도 곧 과두 정치나 민주주의(기원전 5세기경)로 대체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드레루스(Drerus)라는 도시에서는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시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독재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자유와 개성만큼이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중시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대해 "오직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주의 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고, 우주의 운행 원리에 관한 나름의 이론적 모델들을 만들어냈다. 우주에 대한 강한 호기심은 그리스 문화가 물리학, 천문학, 기하학, 형식논리학, 이성철학, 민속지학 같은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우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인들이 그 분야들을 만들었다고까지 주장한다.

물론 과학 영역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그리스 문화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동시대의 다른 문화권이나 훨씬 이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후의 마야 문명에서도 그러한 체계적인 관찰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 문화만이 그러한 관찰을 통하여 어떤 '원리(principle)'를 발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기본 원리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영어의 'school'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scholē'가 '여가(leisure)'를 의미한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란 다름 아닌 지식을 추구하는 자유를 의미했다.

개인의 '관계'를 중시했던 고대 중국

그리스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했다면,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 관계가 중요했다.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 특히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교육 받는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이 특정 상황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였다면,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었다. 그리스인들이 연극이나 시 낭송을 관람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한 반면, 동시대의 중국인들은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특별한 행사로 여겼다. 철학자 헨리 로

즈민트(Henry Rosemont)는 중국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평했다.

초기 유교 신봉자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그 속에서 부여되는 역할들의 총체일 뿐,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결국 그들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므로 역할이 바뀌면 정체성도 당연히 바뀐다. 즉, 완전히 '다른 나'가 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또한 주변 환경을 자신에 맞추어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하여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통치자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스인들에게 행복은 '자신의 자신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 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꽃병이나 술잔에는 전투나 육상 경기처럼 개인들이 경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반면, 중국의 도자기나 화폭에는 가족의 일상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정경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중국인들이 권력자나 가족의 권위에 한없이 휘둘리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이 우선이었을 뿐이다. 중국의 핵심 도덕인 유교에 따르면 인간은 군주와 백성,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노인과 젊은이, 친구와 친구 등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사

회는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이고, 개인은 그 유기체의 한 구성원이
다. 그리고 그 유기체 내에는 서로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존재하
고, 개인들은 그 의무를 준수하는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고
대 중국인들의 사회 생활은 이처럼 사회에서 부여한 역할들을 충
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인들의 생활을 좌우했던
개인의 사적인 자유라고는 거의 없었다. 중국인의 일상에서 개인
의 권리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공
동체 전체의 권리 중 자신의 몫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
국 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인간 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요소
로 간주했다.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200년까지 '백가쟁명'의
시기가 잠시 있었지만, 이 시기에도 비교적 정중한 형태의 논쟁이
주를 이루었을 뿐 공개적인 이의 제기 같은 것은 회피되었다. 저명
한 과학철학자 제프리 로이드(Geoffrey Lloyd)는 이 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적고 있다.

중국의 철학이나 의학,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영역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비판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는 지적인 양보와 타협을 그리
스인들보다 훨씬 빨리 이끌어냈다.

중국의 음악이 대체로 단선율이라는 사실은 중국인들이 얼마나
'일치'를 좋아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은 동일한 선율을 동시에 불렀고 악기들도 동시에 같은 선율을 연
주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인들은 서로 다른 악기
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다른 선율을 연주하는 다성 음악을
선호했다.

중국인들이 인간 관계의 조화를 중시했다고 해서 죽대 없이 다
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자는
선비들이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남을 따르려는 동조 욕구와 구별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좌전
左傳』은 이 두 가지를 요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훌륭한 요리사는 서로 다른 맛을 잘 섞어서 조화롭고 감미로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이때 각각의 맛들은 자신의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더 훌륭한 맛
을 만들어낸다.

고대 중국인과 그리스인들은 이처럼 인간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
에서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에서도
크게 달랐다. 중국인들이 천체를 관찰한 주된 이유는, 하늘에서 일
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 주로 왕
실과 국가와 관련된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천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인간사와는 무관하게 자기 나름
의 규칙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천체에 대한 호기

심이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다.

고대 중국인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에 비하여 자연 세계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은 약한 편이었지만, 실용적인 정신은 뛰어났다. 그 결과 그리스인들보다 훨씬 앞서 잉크, 자기, 관개 장치, 자석 나침반, 손수레, 파스칼 삼각자, 지진계, 면역 기술, 수량적 지도제작기법, 외륜보트, 방수전실, 등자쇠 등을 처음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중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리스인들은 그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중국인이 기술 분야에서 그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철학자이자 중국 연구자인 도널드 먼로(Donald Munro)는 이렇게 적고 있다.

유교적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즉 실용적이지 않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앎'이라는 것은 없었다.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는 그리스의 철학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의 사회적 차이는 그들의 철학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리스인들은 늘 세상의 본질에 관심이 있었다. 기원전 6세기경 터키,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를 포함한 이오니아의 철학은 철저히 경험주의적 접근을 표방하여 감각적 관찰을 최우선시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로 접어들면서 추상적인 사고를 지

향하여, 인간의 감각을 지식의 기초로 삼는 것을 불신하게 되었다.

플라톤은 이데아만이 참된 실재이며, 세상의 의미에 대하여 감각에 의지하지 않는 논리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각과 논리가 대립될 때에는 당연히 감각을 무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식과 현실을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어떤 사물의 속성이란 그 사물의 감각적 특성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는 '단단한 물체'보다는 '단단함'이라는 속성 자체를 논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

본질(essence)이란 한 사물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속성이다. 본질이 바뀌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물이 아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속성은 '우연적(accidental)' 속성이다.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음악적 재능이 생긴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일 뿐이다. 음악적 재능은 '우연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그리스 철학과 중국 철학은 바로 이 본질에 관한 관점에서 크게 달랐다.

고대 그리스어 체계에서는 모든 형용사 뒤에 영어의 'ness'에 해당하는 접미어를 붙여 명사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white'는 'whiteness'로, 'kind'는 'kindness'로 명사화되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습관적으로 행한 작업 중 하나는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추상화된 속성에 의거하여 사물을 범주화하는 것이었다. 그런 후에 각 범주를 지배하는 규칙들에 근거하여 그 범주에

속하는 사물들의 특징과, 그 사물들의 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혜성을 예로 들어보자. 그리스인들은 혜성의 다양한 속성들을 파악하고 그 속성에 따라 혜성을 다양한 추상성의 수준에서 범주화했다. 즉, 특정한 '이 혜성(this comet)', '혜성의 일종(a comet)', 혹은 '천체(a heavenly body)', '움직이는 사물(a moving object)' 등과 같이 추상성의 정도가 다른 여러 수준에서 범주화하였다. 그리하여 각기 다른 수준의 범주를 지배하는 규칙에 근거하여 혜성의 운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사물 자체'를 분석과 주의(attention)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의 철학 정신에 기인한다. 그리스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 역시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로 간주했다. 그들은 사물 자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갖게 되었다. 1) 사물의 속성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2) 그 속성에 근거하여 범주화하고, 3) 그 범주들을 사용해 어떤 규칙을 만들어, 4) 사물들의 움직임을 그 규칙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물'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은 비인간, 즉 자연계에 더 관심이 많았다. 물론 그리스인들도 인간 관계와 윤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중국인들에 비하면 상대할 바가 못 되었다.

그리스 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을 쉽게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물론 기원전 6세기경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os)나 다른 초기 철학자들은 사물의 변화에

매우 민감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에 이르러서는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득세하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Zenon)은 유명한 화살 비유를 통하여 '움직임', 즉 '변화'라는 것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려 했다.

화살이 과거에 도달하려면, 화살은 우선 시위를 떠나 과거까지의 중간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 그 다음 그 중간 지점에서 다시 과거까지의 중간 지점에 이르러야 하고, 다시 그 중간 지점에서 과거까지…… 이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더라도 화살은 여전히 과거에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움직임이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로버트 로건(Robert Logan)이 지적했듯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직선적(linear) 사고와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집착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는 모든 천체는 변하지 않는 완벽한 구형체이며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물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아주 직선적이다. 그의 물리학적 사고에서 '순환 운동(cyclical movement)'이나 '움직이는 속도의 변화' 같은 개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고든 케인(Gordon Kane)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적 주

장들 중 상당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물리학의 기준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보다 그 이전의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물리학적 사고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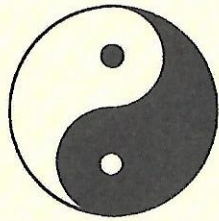
사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철학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도교, 유교, 그리고 훨씬 후대의 불교 철학의 융합으로 형성되었다. 세 가지 철학 모두 조화(화복)를 중시하고, 추상적인 사유는 대체로 신뢰하지 않았다.

지금 소개할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이다. 어떤 늙은 농부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치고 말았다. 그 말이 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을 아는 이웃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 하자, 그 노인은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며 위로를 거절했다. 실제로 며칠 후에 그 말은 돌아왔고,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야생마 한 마리까지 데리고 왔다. 이에 친구들이 기뻐하며 축하하려 하자, 노인은 다시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며 저번처럼 축하를 거절했다. 아니나다를까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에 올라탔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친구들은 또다시 위로하려 했다. 이에 노인은 또다시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

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몇 주가 지난 후 전쟁이 발발하여 긴장한 청년들이 강제 징집당했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친 이유로 그 징집에서 면제되었다. 듣는 사람의 인내심이 허락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이 이야기는 동양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들에게 세상은 늘 변하며 모순으로 가득 찬 곳이다. 따라서 어떤 일의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반대 경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 중국의 총리였던 저우언라이(周恩來)는 '프랑스 혁명이 바람직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it's too early to tell)"라고 대답했다. 동양적 사고의 전형은 보여주는 대답이다.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사고를 잘 대변해주는 것이 음양 이론이다. '음(陰)'(여성적이고 어둡고 수동적인 것)과 '양(陽)'(남성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것)은 서로 반복된다. 음은 양 때문에 존재하고 양은 음 때문에 존재하며, 세상이 현재 음의 상태에 있으면 곧 양의 상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징조이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길'을 의미하는 도(道)의 상징은 흰색과 검은색 물결의 형태를 띤 두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검은색 물결은 흰 점을 품고 있고 흰색 물결은 검은색 점을 품고 있다. 이는 '진정한 양은 음 속에 존재하는 양이고, 진정한 음은 양 속에 존재하는 음이다'라는



도의 그림

진리를 나타낸다. 음양의 원리란 '서로 반대되면서 동시에 서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힘', '서로의 존재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의 관계이다.

『역경 易經』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행복은 불행 때문에 가능하고, 불행은 행복 속에 숨어 있다.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확실한 것은 없다. 의로운 것이 갑자기 사악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갑자기 악한 것이 된다.”

『도덕경 道德經』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원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근원이다.” 회귀, 즉 끊임없는 순환은 도의 기본적인 운행 원리이다.

『도덕경』은 또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

무언가를 구부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펼쳐야 하고

무언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강화시켜야 하며
무언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풍성하게 하여야 하고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주어야 한다.

도교에서 우주란 자연과 인간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며, 이러한 생각은 중국 의학의 주요한 사상적 기초가 된다. 중국 의학은 인간의 몸을 음양 이론과 ‘오행(五行, 즉 土, 火, 水, 金, 木)’으로 설명한다. 중국 의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기(氣)’ 또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유교는 어떻게 보면 ‘상식’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중용(中庸)의 도가 가장 중요한 행위 규범이다. 중용의 도란 절대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 것이며,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사람들에게도 제각각 일리가 있다고 믿으라는 가르침이다. 물론 도교와 마찬가지로 유교의 관심사 또한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살이의 도를 찾는 것이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기원전 551~기원전 479)는 실제로 종교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윤리 철학자였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각 관계에 엄격한 위계 질서와 분명한 행위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오륜(五倫)’이라는 행위 규범을 제시했다.

유교는 경제적인 부와 교육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실제로 유교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가족의 양명과 무관한 개인적인 출

세는 낯선 개념이다. 전도유망한 젊은이는 관료가 되기 위해 시험을 보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온 가족은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 따라서 근대 이전까지의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와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이동이 가능했다. 어떤 집안은 그의 조상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기도 했고, 어떤 집안은 몰락하기도 했다. 부분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회적 유동성' 때문에 공자의 지적인 후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인 후손들보다 훨씬 더 인간 본성의 변화 가능성을 믿었다.

유교와 도교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융합되었다. 도교에 핵심적인 '모순의 수용'과 '사물의 부분보다는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유교 철학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굳이 둘을 구분하자면, 자연과 농촌 생활에 대한 경외는 상대적으로 도교에서 더 강조되었고, 가족·교육·경제적 부의 중요성은 유교에서 더 강조되었다. 두 철학 간의 이러한 차이는 도자기와 그림에서도 드러난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도자기나 그림에는 어부나 목수 혹은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 반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그림에는 가족이나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어떤 개인에게 도교와 유교의 가르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그가 처한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한 중국의 격언처럼 "모든 중국인은 성공하고 있을 때에는 유교도이고, 실패하면 도교도가 된다."

불교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고대에서 몇 백 년 뒤에 인도로 부터 수입되었다. 중국인들은 불교로부터 그들의 문화에 비교적 결여되어 있던 인식론을 받아들였다.

유교, 도교, 불교 모두 '조화', '부분보다는 전체', '사물들의 상호 관련성'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세 철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종합주의(holism)'는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종합주의라는 개념은 공명(resonance) 현상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악기의 한 줄을 건드리면 공명에 의해 다른 줄이 울게 되듯이 인간, 하늘, 땅은 서로에게 이런 공명을 일으킨다. 만일 땅에서 군주가 나쁜 일을 하면 우주의 상태 역시 나빠진다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종합적 사고의 한 예이다.

반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특징인 '추상화(abstraction)'에 대한 관심은 고대 중국 철학에서 그리 쉽게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는 영어의 'ness'에 해당하는 접미사가 없기 때문에 영어의 'whiteness'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사용할 수 없다. 백조의 흰 색이나 눈의 흰색처럼 오직 특정 대상과 관련된 형태로만 쓰인다.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우주관은 우주가 상호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물들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물질이라는 것이었다. 반면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우주의 구성 단위가 원자(atom)인지 아니면 파장(wave)인지가 중요한 논

쟁거리였지만, 중국인들이 보기에 우주란 두말할 나위 없이 연속적인 과정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저명한 과학철학자인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은 “중국인에게 있어서 우주는 연속적인 장(場)이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물들 간의 상호 작용은 원자의 충돌이 아니라 과정들의 중첩이었다”라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두 문화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인들은 개인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보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으로서의 논쟁을 중시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 철학은 개별 사물 자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별 사물의 내부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우주는 원칙적으로 단순하고 따라서 파악 가능한 곳이었다. 따라서 철학자의 과제는 사물의 독특한 속성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속성에 기초하여 사물을 범주화하여, 그 범주의 보편적인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인들은 인간을 ‘사회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조화라고 생각했다. 그 조화란 도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융합’이었고, 유교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화목’을 의미했다. 중국 철학의 목표는 진리의 발견보다는 도(道)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추상적인 사고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했다. 우주는 매우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인간은 마치 그물줄처럼 서로 얽혀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사고 경향 때문에 중국인들은 어떤 대상을 전체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하는 일에 거부감을 느꼈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사를 개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불가능했다.

중국과 그리스의 과학과 수학

그리스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자연계’라는 개념 자체의 발견이다. 그리스인들은 자연계를 인간과 인간의 문화를 제외한, 우주의 나머지 부분으로 규정하였다. 이 정의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자연계와 인간계를 이렇듯 뚜렷하게 구분한 것은 오직 그리스 문화뿐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자연계에 대해 이러한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그들의 객관적인 외부 세계와 주관적인 내부 세계의 구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그리스 논쟁의 전통에서 기인한 듯하다. 즉, 논쟁을 통해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자신이 남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정확하다는 신념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설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객관성은 주관성에서 비롯된다. 사람들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은 그러한 각각의 인식들과는 무관한 객관적인 실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인들의 이러한 깨달음은 아마도 그리스가 무역의 중심국이었던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자유 무역을 통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났으니 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일찍부터 통일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들과 전적으로 다른 철학적·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었다.

그리스인들이 '자연계'의 개념을 발견하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중국인들이 과학을 일찍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호기심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인간계와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자연계'라는 개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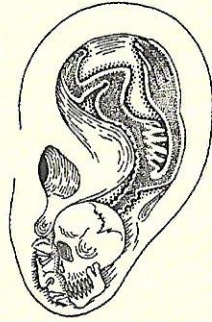
개별 사물과 그것의 속성에 집착한 탓에 그리스인들은 아주 기본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돌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 돌'이 '중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무 조각이 물 위에 뜨는 것은 그 '나무 조각'이 '부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경우 모두 주 초점은 오로지 대상 자체이며, 그 대상을 둘러싼 외부의 힘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중국인들은 우주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장(場)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장 전체의 복

잡성에 주목했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수많은 힘들이 상호 작용하는 장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 사이에서도 힘이 작용한다(action at a distance)'라는 사실을 갈릴레오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식과 공명의 원리뿐만 아니라, 갈릴레오조차 깨닫지 못했던, 달의 운동과 조류 사이의 연관성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서부의 한 사막에는, 서양인의 모습을 한 키가 크고 머리색이 붉은 사람들의 유해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 유해는 수천 년 정도 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생김새 말고도 또 다른 흥미로운 점에서 그곳에 사는 종족들과 달랐다. 그들 중 몇몇의 몸에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대 역사를 통해 볼 때, 수술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중국인들이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조화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사고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일이다.

중국인들은 몸의 건강은 몸 안에 존재하는 많은 기운들 사이의 균형과 장기들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동양 국가의 전통 의학은 몸의 각 기관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굳게 믿고 있다. 예를 들면, 동양 의학에서는 귀와 모든 장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침술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특정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위와 관련된 다른 신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부위만



침술을 위한 귀의 표피와 뼈 도해

도려내는 수술은 중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초보적이고 단순해 보였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에서는 수천 년 동안 수술이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시행되어왔다.

복잡한 상호 관련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념은 '풍수'에도 잘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풍수 전문가를 부른다. 그 전문가는 위도, 바람, 수맥과의 거리 등등 수없이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건물의 구조에 대해 조언해준다. 아무리 현대적인 홍콩의 고층 건물이라도 초기 공사 단계에서는 모두 이런 풍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중국인은 어떤 사물이든 주변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따라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칼로 무 자르듯 정확하게 범주화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단순한 범주와 규칙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통제하기에는 우주는 너무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곳이었다.

중국인들이 일찍이 우주의 복잡성을 이해하여, 사물을 파악할 때 부분보다는 전체 맥락을 중시한 점은 매우 타당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주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어떤 범주에 존재하는 규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범주에 속하는 개체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반면 그리스인들은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어떤 사물의 추상적인 속성에 의거하여 그 사물의 행동을 설명하려 하는 과오를 범하기는 했지만, 여러 개체들을 범주화하여 공통의 규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상성에 대한 추구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고 과정에 있어 대체로 유용한 습관이다. 그리스인의 범주에 대한 집착은 과학의 발전과 이후의 지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학과 수학자들은 한 수학자를 자신들의 학파에서 축출했다고 한다. 재미있게도 그 이유는 그 사람이 2의 제곱근과 같은 무리수(예측 가능한 일정한 패턴 없이 1.4142135……의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수)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그리스 수학자들이 무리수를 실수(實數)로 간주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스인들은 세상을 분절적인 입자의 조합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한히 계속

되는 성질의 무리수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흥미롭 게도 그리스인들은 2의 제곱근이 무리수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증 명법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모순법'이었다.

그리스인들은 '모순'이라는 개념에 강박적이라 할 만큼 집착했 다. 어떤 주장이 다른 주장과 모순 관계에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반 드시 그릇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모순의 원리(principle of noncontradiction)는 형식 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왜 유독 그리 스인들만이 논리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그리스가 논쟁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논쟁을 하 다 보면, 어떤 주장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금세 설득력 없는 주장으 로 심판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회당과 광장에서 수없이 듣는 얼 토당토 않는 주장들에 염증을 느끼고 어떤 주장이 타당한가 타당하 지 않은가를 판결해주는 기준으로 논리학을 개발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기원전 5세기에 철학자 묵자(墨子)에 의해 논리학이 발전했지만, 묵자는 자신의 논리학을 체계화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국에서는 논리학이 일찌감치 사라지고 말았다. 중국에는 논리학 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비모순의 원리' 또한 중시되지 않았다. 중국 인들이 연산이나 대수학에서는 뛰어나면서도, 기하학에서 거의 성 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기하학이 '모순법'을 통한 추상 적인 증명을 중시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2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
서양의 홀로 사는 삶



2장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

서양의 홀로 사는 삶

슈퍼마켓에서 40개가 넘는 시리얼을 놓고
선택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1930년대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에는 「딕과 제인」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딕이 뛰는 것을 보아라. 딕이 노는 것을 보아라.

딕이 뛰면서 노는 것을 보아라.

한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이 문장들은 서양
의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똑같이 한 남자아
이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이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구나. 형은 어린 동생을 사랑해.

그리고 동생도 형을 사랑한다.

이 문장들은 독립된 개인의 개별 행위가 아닌 개인과 주변 인물 간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어린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과서에 이미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자기 개념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시오”라는 요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 개념(self-
concept)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문화에 따라 천차만별이
다. 미국과 캐나다인들은 주로 성격 형용사(친절하다, 근면하다)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행동(나는 캠핑을 자주 한다)을 서술한다. 이에
반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
회적 맥락을 동원하여 대답하고(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많이 언급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맥락을
제시해주지 않은 채로 자신을 기술하게 하면 어려워하지만, 친구
들과 있을 때나 직장에서의와 같은 특정한 맥락을 제시해주고 그 상
황에서 자신을 기술하게 하면 아주 능숙하게 해낸다. 그러나 미국
인들의 경우 이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
면, 자신을 기술할 때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정도가, 일본인이 미
국인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한다(‘나는 내 누이와 요리를 같이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동양의 격언은, 동양 문화에서 개인
의 개성이 자유롭게 표현되기보다는 억압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일
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개인의 성공을 덜 중
시하며, 그보다는 집단 전체의 목표 달성이나 화목한 인간 관계를
더 중시한다.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지도 않

는다. 동양인들에게 있어 개인의 만족감은 자신이 집단 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동양인들의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은 보편적(universal)이라기보다는 특수(particular)하며, 각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역할에 근거하고 있다. 한번은 절친한 동양인 친구 하나가 미국의 몇몇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의아하게 느꼈던 점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 가정에서는 누구에게든 '고맙다'라는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다. "식사 테이블을 정리해줘서 고마워, 샘", "세차를 해줘서 고마워, 존……." 그러나 자기 나라에서는 각자가 마땅히 엄수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개인의 선택은 상대적으로 그리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는다.

어느 동양 친구의 말처럼 슈퍼마켓에서 40개가 넘는 시리얼을 놓고 선택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동양적 사고에서 바라본 개인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존재이다. 구체적인 어떤 사람과 구체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인간을 분리시켜 그의 행위나 속성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양의 사고 방식에서는 매우 낯선 일일 수밖에 없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은 이러한 차이를 '저맥락

(low context) 사회와 '고맥락(high context) 사회의 구분을 통해 설명하였다. 저맥락 사회인 서양에서는 사람을 맥락에서 떼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인은 맥락에 속박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러나 고맥락 사회인 동양에서 인간이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동적인 존재로서 주변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철학자 도널드 먼로의 표현을 빌자면 동양인들은 인간을 "가족이나 사회 혹은 도의 원리와 같은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다." 인간은 '인간 관계 속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리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동양인에게 있어서 행위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조정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동양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내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애정을 보이지만, 외집단이나 그저 아는 사이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거리를 둔다. 그들은 자신이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끼고, 그들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훨씬 더 신뢰한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자신과 내집단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며, 내집단원이나 외집단원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행동 원리를 따른다.

동양과 서양의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언어에도 일부 반영되어



자아, 내집단, 외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점

있다. 중국어에는 영어의 'individualism'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근접한 단어인 '개인주의'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또한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 人도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어에서는 일인칭 주어가 대화 중에 자주 생략되며, '나'에 해당하는 말이 맥락에 따라서, 대화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용어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여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할 때에는 자신을 표현하는 말로 わたし(와타시)란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남자가 대학 동기들과 관련하여 자기를 표현할 때에는

ぼく(보쿠)나 おれ(오레)를 사용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는 おとうさん(오토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일본인들이 흔히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じぶん(自分)이라는 말도 그 어원은 '집단에서의 내 부분'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경우도 'Could you come to dinner?'라는 말을 할 때, 상대에 따라 'you'에 해당하는 말과 'dinner'에 해당하는 말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인들이 더 예의를 차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개인은 각기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할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동양인의 깊은 신념이 담겨 있다.

동양과 서양의 자기 개념의 차이는 자신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발견된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자신의 독특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양인들은 그러한 착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자인 김희정과 헤이즐 마커스(Hazel Markus)는 사람들에게 여러 대상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중 한 사물을 선택하게 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가장 희귀한 것을 고르고 한국인들은 가장 보편적인 것을 골랐다고 한다. 같은 연구에서 불펜들을 선물로 주면서 고르게 했더니 미국인들은 가장 희귀한 색의 불펜을 고르고 한국인들은 가장 흔한 색의 불펜을 골랐다. 미국인들은 항상 남의 눈에 띄고 싶어하나 한국인들은 늘 남들 정도만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일본어에 self-esteem(자존감)에 해당하는 고유한 단어가 없다는 사실 또한 우연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self-esteem을 일본식 발음으로 풀어서 '세루푸 에스티무(セルフ エステム)'라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경향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동양 언어에서는 생소하다. 반면,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에 매우 자연스럽다. 예를 들면,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은 자신들이 많은 영역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양인들은 많은 속성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자신을 평균 이하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동양인들은 자기 안에 긍정적인 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쁜 특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들이 그저 더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도 자신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물론 동양인들이 자신의 특성을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동양인들에게는 자신이 '특별하다,' '남들보다 탁월하다'라고 믿게 하는 문화적 압력이 없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사회에서 개인의 과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혹은 '더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화목을 유지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비판(self-criticism)이 필수적이다.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집단의 과제 달성을 방해하는 개인의 단점이

나 특성을 반드시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양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들과 마찰 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친다.

일본의 학생들은 인간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동양인들에게는 우스워 보이겠지만, 얼마 전 내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감(self-esteem)을 심어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사회심리학자인 스티븐 하이네(Steven Heine)와 그 동료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자존감을 추구하는 서양인들과 자기비판을 통해 자기 향상을 추구하는 동양인들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그들은 캐나다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창의력 검사'를 실시했다(실제로 이 검사는 창의력 검사가 아닌 허위 검사였다). 실험에 참가한 한 그룹에게는 검사 결과 창의력이 매우 높다는 거짓 정보를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창의력이 매우 높지 않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난 다음 참가자들에게 비슷한 과제들을 풀게 하고 그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인은 창의력 점수가 높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과제를 더 오랫동안 풀었지만, 일본인은 그 반대였다. 일본인들은 점수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이 더 향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몇 가지 기술에만 능숙한 반면, 동양인들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기술이라도 꼭 익히고야 마는 특성이 있는데, 이 실험 결과는 이런 현상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서양의 독립성과 동양의 상호의존성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사회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19세기 이후의 사회과학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차이들은 사실 톨니스(Tönnies)의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의 구분과 유사하다. 공동사회란 사람들 간의 인간 관계에 기초한 사회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상호 일체감에 근거하고 있다.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친구 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관계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애정, 빈번한 대면 접촉, 공유된 경험, 심지어는 공유된 소유가 사회의 밑받침이 된다. 반대로 이익사회는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둔 '수단으로서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재화와 노동의 빈번한 교류가 발생하고, 협상과 계약이 사회 운영의 중요한 원리가 되며,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경쟁이 장려된다. 기업이나 관료 제도가 이러한 관계의 예이다.

물론 한 사회가 전적으로 공동사회이거나, 혹은 전적으로 이익

사회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사회든 두 요소가 동시에 혼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그것이 사회과학에서, 특히 문화심리학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문화심리학의 용어로는 공동사회는 대개 '집합주의적' 사회를 지칭하고, 이익사회는 '개인주의적' 사회를 지칭한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자인 헤이즐 마커스와 시노부 기타야마(Shinobu Kitayama)가 제안한 '독립성(Independence)'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는 용어들도 비슷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나는 이 책에서 주로 이 용어들을 사용하려 한다.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훈련은 아이들의 잠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다른 침대에 잠을 재우지만 이는 동양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아이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나타나는 두 문화 간의 차이는 훨씬 더 심하다. 중국에서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어른들이 빙 둘러앉아 아이를 지켜보며 귀여워하고, 일본의 아이들은 늘 어머니와 붙어 다닌다. 일본인들은 '어머니와의 친밀성'을 평생 동안 유지하고 싶어한다. 일전에 미국 미시간대학의 사회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에게 '어머니와 같이 있고 싶은 정도'를 물어보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정도를 재는 척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일본 학자들은 '나는 어머니와 늘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말을 마지막 척도 값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우스꽝스럽고 당황스러운 주장이었다. 미국인들이 그러한 척도 값을 보면 당황하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서양에서는 아이들의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 어릴 때부터 매우 분명하게 훈련을 시킨다.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 자기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양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녀의 일을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서양의 아이들은 독립성에 대한 훈련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면 심하게 반항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회심리학자인 시나 이엔가(Sheena Iyengar)와 마크 레퍼(Mark Lepper)의 실험이다.

그들은 7살에서 9살까지의 미국, 중국, 일본의 아이들에게 애너그램(anagram) 과제를 주었다. 애너그램 과제란 흐트러진 철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만드는 과제로 예를 들자면 GRIET에서 TIGER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제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실험자가 아이들에게 어떤 애너그램을 풀 것인지를 지정 해주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고, 마지막 조건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특정 애너그램을 풀도록 지시 했다고 알려준 다음 지정된 것을 풀도록 했다.

그런 후에 각 조건의 아이들이 그 과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그

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하여 푸는지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 아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조건에서 가장 강한 학습 동기를 나타냈고, 어머니가 선택해준 조건에서 가장 낮은 동기를 보였다. 아마도 엄마가 선택하여준 경우 자신의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놀랍게도 동양 아이들은 어머니가 선택해준 조건에서 가장 강한 학습 동기를 보였다!

인간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지게 마련이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사물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고 있잖아!", "담장이 아야 아프다고 하잖아!" 같은 말들로 꾸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

타인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훈련의 효과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타난다.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들이 타인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잘 읽어낸다고 한다. 사회심리학자이자 경

영학자인 제프리 산체스 버크스(Jeffrey Sanchez-Burks)와 그 연구팀은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어떤 경영자가 부하 직원에 대해 내린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그 평가에 나타난 '숫자'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진짜 속내를 추측하게 하였을 때 미국인들보다는 한국인들이 훨씬 더 잘 읽어냈다. 미국인들은 숫자를 숫자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한국인들은 숫자의 이면에 있는 경영자의 감정을 읽으려 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서양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하며,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동양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어떤 아이가 노래를 잘못 부르고 있을 경우, 미국의 부모들은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그만 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동양의 부모들은 "야, 노래 참 잘 한다"라고 말한다. 아이는 처음에는 우쭐하지만, 점차 부모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고 결국 노래를 그친다. 서양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동양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꾸넘하곤 하는데, 이는 동양인들이 간접적인 화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동양인들은 미국인들이 가끔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직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회와 상호의존적인 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며, 이러한 차이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 개인적 행위에 대한 차유 선호 대 집합적 행위에 대한 선호
- 개인의 독특성 추구 대 집단과의 조화로운 어울림 추구
- 평등과 성취 지위의 추구 대 위계 질서와 귀속 지위의 수용
- 보편적 행위 규범(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행동 원리)에 대한 선호 대 특수적 행위 규범(유형과 종류와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행동 원리)에 대한 선호

위의 네 가지 사항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어느 사항에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항에서도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위의 각각의 사항에 있어서 여러 문화를 비교하는 다양한 조사를 시도했는데, 그중에서도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경영학 교수인 찰스 햄든 터너(Charles Hampden-Turner)와 엘폰소 트롬페나(Alfonso Trompenaars)는 전세계 1만 5,000여 명의 중간 관리급 이상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그들에게 독립적 가치와 상호의존적 가치가 상충하는 딜레마 상황을 여러 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독특성과 집단

내 조화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a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율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

b 일을 잘했다고 해서 특정 개인만이 부각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하는 직업

실험 결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경영자의 90% 이상이 a를 선택했지만, 일본이나 싱가포르 경영자는 50% 미만이 a를 선택했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경영자들의 선택은 이 둘의 중간쯤이었다.

흔히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지역번호를 5년마다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즉, 회사를 자주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일단 취직하면 그 직장과의 관계, 그리고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것은 그리 좋지 않게 여겨진다.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험튼 터너와 트롬페니는 응답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시했다.

만일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면

a 나는 평생 그 직장에서 근무할 것이다.

b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것이다.

예상대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네덜란드 경영자의 90% 이상이 b를 선택한 반면, 일본 경영자들의 경우에는 40%만이 b를 선택했다(물론 최근 들어서는 기업 사이즈를 줄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동양인들이 b를 선택하는 비율도 늘어날 것이다).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경영자들의 선택은 이 둘의 중간 정도였지만, 그래도 동양 경영자보다는 서양 경영자 쪽에 가까웠다.

또한 험튼 터너와 트롬페니는 노력과 능력을 통해 획득한 성취 지위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귀속 지위의 상대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국의 경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경영자는 부하보다 나이가 많아야 하며, 나이든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마땅히 더 존경받아야 한다.' 지위를 결정하는 데 나이가 중요하다는 이 견해에 대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스웨덴 경영자의 60% 이상이 거부 의사를 보였으나, 일본, 한국, 싱가포르 경영자의 60% 이상은 이에 찬성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갈등을 겪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특히 보편주의적 행동 규범에 익숙한 사람과 특수주의적 행동 규범, 즉 그때그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른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호 작용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서양인들은 보편주의와 같은 추상적인 규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규칙을 저버리는 행위는 부도덕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양인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때로는 비정하게까지 보인다. 험든 터너와 트롬페나가 던진 많은 질문들이 이러한 문화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중 한 예를 보자. 어떤 직원이 지난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아주 많은 공헌을 해왔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업무 실적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앞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a 그가 과거에 회사에 공헌한 바나 그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업무 수행 능력만을 고려하여 그를 해고할 것이다.
- b 그간의 공헌을 고려하여 회사가 그 사람의 인생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이 질문에 대하여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75% 이상이 a를 선택한 반면, 한국인과 싱가포르인은 20%, 일본인은 30%만이 a를 선택했다. 흥미롭게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많은 유럽 국가 사람들은 이 질문에는 미국인들보다 동양인들과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서양 사람들의 '보편적인 규칙에 대한 집착'은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사이의 계약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계약이란 한번 맺어지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상황이 변해서 계약 내용이 한쪽에게 불리해지더라도 계약을 변경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의존적이며 고맥락 사회인 동양에서는 상황이 변하면 계약의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계약에 대한 이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국가간에 마찰과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1970년대 중반,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설탕 계약' 문제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설탕 제조업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설탕 공급자들과 1톤에 160달러로 5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후 세계 설탕 가격이 폭락하자 일본은 상황이 변했으니 계약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는 계약은 계약이라며 정색을 했던 것이다. 계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헤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인 사회와 상호의존적인 사회 간의 이러한 광범위한 차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해준다. 그중의 하나가 '광고' 분야로서, 앞의 연구 결과들은 광고를 제작할 때에는 '그 문화의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영학자인 한상

필과 심리학자인 샤론 샤빗(Sharon Shavitt)은 미국과 한국의 주요 시사 잡지와 여성지에 등장하는 광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의 광고들은 주로 개인의 선호를 자극하거나 제품 구입으로 인한 개인의 혜택을 강조한 반면, 한국의 광고들은 주로 집단의 선호를 자극하거나 집단이 받게 될 혜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개인주의적 광고'와 '집합주의적 광고'를 제작하여 그 효과를 측정했을 때, 개인주의적 광고는 미국인에게, 집합주의적 광고는 한국인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물론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이라는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어떤 개인에게든 두 가지 속성이 혼재되어 있다. 그중 어떤 속성이 더 부각되는가는 의외로 간단하다. 사회심리학자인 웬디 가드너(Wendy Gardner), 시라 가브리엘(Shira Gabriel), 그리고 안젤라 리(Angela Lee)는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의존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절차를 심리학 용어로 '점화(Priming)'라고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으로, 실험 참가자들에게 '왕에게 보낼 전사를 선택해야 하는 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했다. '독립적인 사고' 집단이 읽은 이야기에서는 왕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개인을 선택하고 싶어한다고 기술되어 있었고, '상호의존적 사고' 집단의 이야기에서는 장군이 자신의 '가족'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한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여행에 관련된 글을 주면서 독립적 사고 집단에게는 그 글에 등장하는 일인칭 단수 단어(I, mine, my, me)을 찾아서 동그라미 치도록 했고, 상호의존적 사고 집단에게는 일인칭 복수 단어들(we, ours, us, our)을 동그라미 치게 했다.

이 과제를 마친 후에 참가자들은 개인적 자유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 예를 들면 소속감, 노인에 대한 존경 등이 섞여 있는 질문지를 받고 각 가치들의 중요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독립적인 사고로 유도된 집단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높게, 집합주의적 가치는 낮게 평가했지만, 집합주의적 사고로 유도된 집단에서는 그 반대 패턴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게 A가 책 읽는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친구 B에게 가게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읽게 했을 때, 집합주의적 사고 유도 집단이 개인주의적 사고 유도 집단보다 A를 더 비난하는 결과가 나왔다!

동양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호의존적 단서들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의존적인 사람이 되도록 유도(점화)되고 있고, 서양인들은 독립적 단서들을 통해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늘 점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독립적인 사회에서 살면 독립적 단서에 노출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사고하게 되고,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지내게 되면 상호의존적 단서에 점화되어 상호의존적인 방법으로 사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잘 아는 캐나다 출신의 젊은 심리학자의 경우가 이를 잘 보

여준다. 그는 학위를 마친 후 일본에서 수년간 연구를 한 후 미국의 여러 대학에 교수직 응모를 했는데, 그때 그가 쓴 자기 소개서를 보고 그의 지도교수는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개서의 앞머리에서 그 젊은 심리학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 인지를 장황하게 기술해놓았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일본 생활 때문에 완전히 동양적인 사고에 물든 것이었다.

보다 더 극적인 예로, 어떤 사회에서 지내느냐에 따라 자존감 점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서양에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보낸 일본인들의 경우 자존감 점수가 그 사이에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대로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 지낸 캐나다인의 자존감 점수는 그 사이에 심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마도 서양 사회에는 개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요소가 더 많고, 동양 사회에는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은 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양과 서양 내에서의 국가간 차이

헵튼 터너와 트롬페나의 연구는 '서양'이라는 문화권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문제에 있어서 단일하지 않으며 서양 내에서도 국가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중해권 국가들과 벨기에, 독일은 신교의 영향이 강하고 앵글로색슨 문화가 강한 진형적인 서양과 동양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패턴을 보였다.

어떤 학자들은 문명이 처음 시작된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Fertile Crescent)'에서 점차 서쪽으로 이동할수록 개성, 자유, 합리성, 보편주의 같은 가치들이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보편적인 법을 만들었고, 그보다 서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했고, 다시 더 서쪽의 그리스인들은 그 개성을 더욱 강조하고, 거기에 개인의 자유, 논쟁, 형식 논리를 가미시켰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재발견하여 소위 그리스-로마 시대의 업적을 만들어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홍미롭게도 프랑스와 벨기에를 건너뛰었다)은 개인의 책임 의식과 직업에 관한 소명 의식을 만들어냈으며,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가족과 내집단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보다 신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청교도와 신교를 포함하는 영국 내의 칼뱅주의 문화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그 평등주의 사상은 훗날 미국 정부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헵튼 터너와 트롬페나의 연구 결과는 '서쪽으로의 문명의 이동'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서쪽에 위치한 나라일수록 독립적 가치를 더 신봉한다는 것이다. 같은 유럽 내에서의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들의 후손들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내게는 매우 저명한 사회과학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는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으로 칼뱅주의 교리를 신봉하는 신교도였다. 그의 아들 역시 사회과학도였는데, 1970년대 미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들의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신이 나서서 아들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곤 했다.

물론 그의 위치에서라면 얼마든지 쉽게 아들의 직장을 구해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앵글로색슨계의 한 친구는 잘한 일이라고 동의했지만, 보다 대륙적인, 즉 동쪽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후예인 가톨릭 친구들이나 유대인 친구들은 가족 일에 그토록 무관심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일화에 불과하지만,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해도 미국 내에서 가장 '서양적인' 사람들은 백인 신교도들이고, 가장 '동양적인' 사람들은 흑인이나 라틴아메리카계, 가톨릭 신자들이다.

동양 문화권 내에서도 역시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심지어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차원에서조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는 1982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이 전통적인 문화와 공산주의적 특징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였다. 내가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바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세일즈맨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연극은 가장 서양적인, 더군다나 가장 미국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연극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연극의 원작자인 아서 밀러(Arthur Miller)가 공연 관련 일로 중국에 방문해서 자신의 연극이 중국에서 그토록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은 '가족'에 관한 연극이고, 그것이 가족을 중시하는 중국과 코드가 맞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연극의 중요한 주제인 '체면' 역시 중국인들의 의례 존중 문화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물론 체면을 중시하지만 조직과 관련된 체면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과는 다르다.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 철학자인 하지메 나카무라, 심리학자인 도라 디엔(Dora Dien), 사회철학자인 린위탕 등은 중국과 일본의 또 다른 차이들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규제 면에서, 중국의 경우는 그 규제가 상사 혹은 윗사람 등 대개 권위자로부터 비롯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대개 동료로부터 비롯된다. 학교 내에서의 통제력도, 중국에서는 주로 교사로부터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동료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도라 디엔은 "중국인들은 오류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각 개인의 개성을 유지하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집단 속으로의 개인의 완전한 융합을 강조한다"라고 적고, 있다. 또 중국인들은 지중해 사람들처럼 조금은 더 느슨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독일인이나 네덜란드인처럼 질서를 중시하는 삶을 추구한다.

일본인의 독특한 특성으로 '아마에(あまえ)'라는 개념이 자주 거론된다. 일본의 정신분석학자인 다케오 도이에 따르면 아마에란 약자나 어린아이, 혹은 부하 직원이 윗사람이나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히 가까운 관계이므로 윗사람에게 무리한 요구, 예를 들면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다든지, 무리하게 승진을 부탁한다든지 하는 부적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 내의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동양과 서양 사이에는 그러한 국가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논쟁하는 서양, 타협하는 동양

고대 중국에 논쟁이 없었듯이 현대 동양 사회에서도 논쟁은 미미하게 오갈 뿐이다. 반면, 서양인들에게 논쟁은 제2의 천성과도 같다. 미국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훈련을 받는다. 일본인 친구가 말하기를, 일본에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lively discussion)'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논쟁이 집단의 화목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가 한번은 용기를 내서 자기 주장이 분명해 보이는 일본

친구들을 초대해서 미국식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논쟁을 기대했던 그의 바람은 무너지고 말았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반박당할 때 그것을 방어하는 사람들 역시 많지 않았던 것이다.

논쟁의 전통이 없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그 전의 정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하여 말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이는 서양인인 나의 관점에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전적으로 실패한 체제를 고수해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논하는 논쟁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한국의 우월성을 인정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전통이 없는 한국인에게서는 옳은 주장이 결국 승리하리라는 신념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한국 정부는 북한에 관한 정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했고, 북한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자국민을 보호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논쟁의 전통은 법률 분야나 과학에서의 수사학(rhetoric)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개의 과학 논문은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관련 이론 기술, 구체적인 가설 기술, 연구 방법

및 그 정당성 기술, 연구 결과 제시, 연구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는 주장 전개, 다른 대안 주장들에 대한 반박, 기본 이론에 대한 재언급, 보다 큰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학습하기 때문에 대학원생 정도가 되면 이 구조를 거의 제2의 천성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양인들에게 이러한 수사 구조는 상대적으로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미국 교수들은 매우 성실하며 똑똑하다고 믿고 선발했던 동양 학생들이 제출하는 첫 번째 논문을 읽고 나서 대개는 크게 실망한다. 단순히 영어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논문에 논리적 구조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미국 교수들은 동양 학생들의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서양식 수사법에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동양에서는 분쟁을 해결할 때에도 논쟁을 잘 벌이지 않는다. 대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제3의 중재자를 찾는데, 이 사람의 주 임무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두 당사자 사이의 적대감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대체로 그들은 '중용의 도'를 내세워 타협을 유도한다. 동양에서는 서양식의 해결법이 너무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협상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고맥락의 동양 사회와 저맥락의 서양 사회는 크게 다르다. 정치학자인 무샤코지 긴히테는 서양의 협상

스타일을 에라비(えらび)로, 일본인의 협상 스타일을 아와세(あわせ)로 표현한다. 에라비 스타일은 자신의 환경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개인은 각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환경을 바꾸어나간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인간 관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서양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이나 그들이 제시하는 안건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협상은 요점만 다루기 때문에 시간 낭비 없이 단기간에 끝난다.

그러나 일본인의 스타일 아와세는 협상에 있어 관계를 중시한다. 일본인들은 첫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미국인들보다 양보를 많이 한다. 왜냐하면, 처음 얻어낸 합의가 장기적인 상호 신뢰와 협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해 보이는 행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믿는다. 일본인들은 협상에 임할 때 쟁점이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쟁점이 분명하고 단순하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평균적으로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는 매우 큰 사회심리적 차이가 존재한다. 동양인들은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self)를 전체의 일부분으로 생

각하지만, 서양인들은 독립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전체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여긴다.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성취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영광을 의미하나,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개인의 업적을 의미한다. 동양인들은 인간 관계 속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비판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동양인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간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인간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한다. 동양인들은 위계 질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집단의 통제를 수용하지만, 서양인들은 형평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선호한다. 동양인들은 모순과 논쟁을 회피하지만 서양인들은 법률, 정치, 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논쟁을 끌어들인다.

앞서 언급했지만, 동양과 서양 사이의 이러한 차이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양 사회에도 동양인과 비슷한 사람이 있고, 동양 사회에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서양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한 개인의 특성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체를 보는 동양과 부분을 보는 서양



5장

동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동양과 명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서양

The Geography of Thought :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동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동양과
명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서양



서양의 아이들은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빨리 배우지만, 동양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명사 못지않게 동사도 빨리 배운다.

아르헨티나의 작가인 호르헤 보르

헤스(Jorge L. Borges)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한 백과사전은 세상의 동물들을 이렇게 분류했다고 한다.

- 황제에 속하는 동물
- 향료로 처리하여 박제로 보존된 동물
- 사육 동물
- 젖을 빠는 돼지
- 인어
- 전설상의 동물
- 주인 없는 개
- 이 분류에 포함되는 동물
- 광폭한 동물
- 낙타 털처럼 미세한 털로 된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동물
- 기타
- 꽃병을 깨뜨린 동물
-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물론 보르헤스 자신이 편의적으로 만든 분류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세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한 방식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식과는 상이하게 달랐다는 점이다. 그리스인들은 공통의 속성을 지닌 것들을 같은 범주로 분류했지만, 철학자 도널드 먼로에 따르면 중국인은 그렇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서로 '공명(resonance)'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을 같은 범주에 속한 것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오행설에 따르면 '봄, 동쪽, 나무, 바람, 초록'은 모두 동일한 범주에 속했다. 왜냐하면, 바람의 변화가 나머지 네 가지에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중국에서는 범주화라는 지적 작업 자체에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장자는 "범주화는 지식을 제한하고 더 큰 지식을 분열시키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도덕경』은 범주화에 의존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다섯 가지 색으로만 범주화하면, 우리 눈은 멀게 되고
다섯 가지 음으로만 범주화하면, 우리 귀도 멀게 되고
다섯 가지 맛으로만 범주화하면, 우리 입맛은 째어질 것이다.

중국인들이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는 사물들만을 동일한 범주로 묶는 것'에 무관심했던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그들에게 우주란 연속적인 물질이었기 때문에, 내적 공유 속성에만

근거하여 사물들을 개별적인 범주로 묶는 것은 그리 유용한 접근 방법이 아니었다. 이런 접근은 사물 자체가 분석 단위였던 서양인들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세상은 '사물'로 구성된 집합체이기 때문에, '개체-집합'이라는 구도가 자연스럽다. 그리스인들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귀납적 추리를 유도하게 되었다. 즉, 어떤 범주에 속하는 한 개체가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 범주에 속하는 다른 개체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포유류가 간을 가지고 있다면 포유류에 속한 다른 모든 동물들도 간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단일 개체-다수 개체' 혹은 '개별 개체-집합'의 구도에서는 단일한 사례로부터의 귀납적 추리가 가능하지만, 중국인의 '부분-전체'라는 구도에서는 불가능하다.

범주를 중시하는 서양과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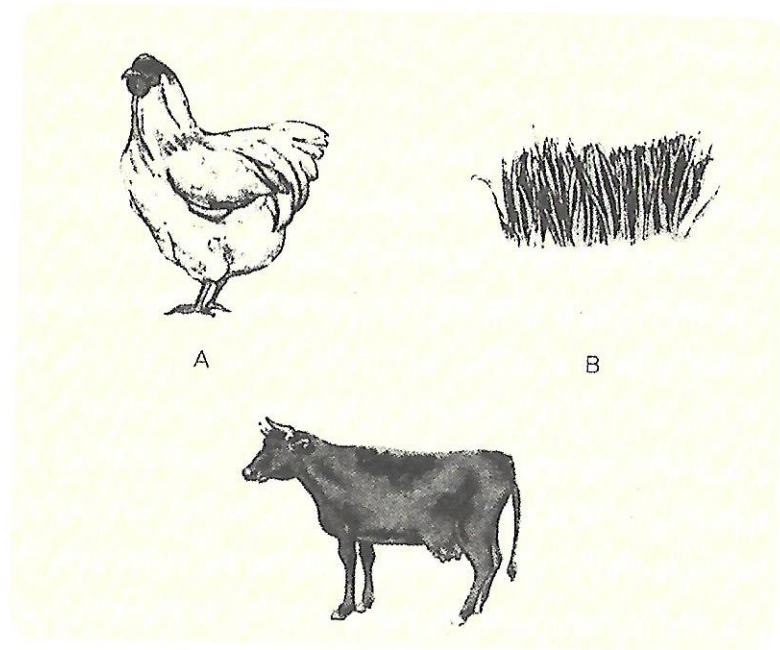
범주화에 대해서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가 매우 다른 지적 전통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은 '현대의 동양인들과 현대의 서양인들도 그러한 차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지적 차이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그 사회적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 사물들을 범주화하려는 경향이 더 강할 것이다.
- 서양인은 규칙을 사용하여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일을 더 쉽게 배울 것이다.
- 서양인은 범주를 이용한 귀납적 추리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사물들 간의 관계나 유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직할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3개를 보고 그중 2개를 하나로 묶는다면 무엇을 묶을지 생각해보라. 만일 당신이 서양인이라면 아마도 닭과 소를 묶을 것이다. 실제로 발달심리학자인 치우리앙황이 그와 같은 그림을 미국과 중국의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로 묶는 과제를 시켰을 때, 미국의 어린이들은 같은 분류 체계에 속하는 소와 닭을 하나로 묶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어린이들은 '관계'에 근거한 방식을 선호했다. 즉, 소와 풀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 이유는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다'라는 관계적 이유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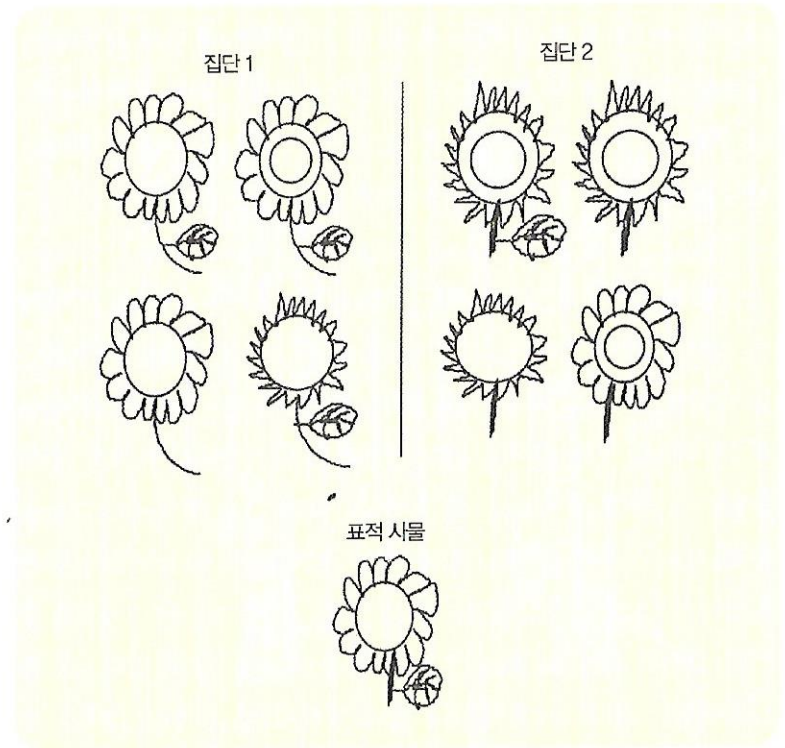
지리준, 장지용과 나는 중국과 타이완의 대학생들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림 대신 세 가지 사물의 이름을 제시하고(예를 들어 팬더 곰, 원숭이, 바나나), 그중 서로 가장 관련되어 있는 2개를 고르게 했다. 예상한 대로, 미국의 대학생들은 동일한 분류 범주에 해당하는, 즉 '동물'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팬더 곰과 원숭이를 고른 반면, 중국



범주에 의한 분류 대 관계에 의한 분류를 측정하는 항목들의 예

과 타이완의 대학생들은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다'라는 서로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숭이와 바나나를 고르는 경향을 보였다.

만일 세상을 조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범주를 이용하고 각 범주를 지배하는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서양인들은 사물들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그것들이 동일한 규칙에 의해 범주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범주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동양인의 경우에는 규칙과는 무관한 '사물들 간의 표면적인 유사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 가능성



외형이나 규칙에 의거한 유사성 판단을 측정하는 그림

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라 노렌자안, 에드워드 스미스, 김범준과 나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위의 그림과 같은 그림 13개를 보여주고 표적 사물이 집단 1과 집단 2 중 어느 집단과 더 비슷한지 판단하게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들은 표적 사물이 집단 1과 더 비슷하다고 답한 반면, 대부분의 미국 대학생들은 집단 2

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한국 학생들은 외형적인 유사성 때문에 집단 1을 택했고, 미국 학생들은 '줄기가 직선이다'라는 규칙에 의하여 집단 2를 택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동양계 미국인의 판단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중간쯤에 해당했다.

만일 동양인들이 '규칙'이나 '범주'를 사용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덜 익숙하다면 그들은 규칙을 적용하여 사물을 범주화하는 작업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라 노렌자안과 그 연구팀은 미시간대학에 재학 중인 동양인, 동양계 미국인, 미국인 학생들에게 다음 페이지의 그림들을 컬러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동물이 다음 특징들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금성'에 사는 (가상)동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토성'에 사는 동물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특징들이란 '꼬리가 꼬여 있다', '발굽 형태의 발', '목이 길다', '부리 형태의 입', '안테나 귀를 가지고 있다' 등이었다. 그림 왼쪽 상단 동물은 그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금성 동물이 된다. 그러나 오른쪽 상단 동물은 그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토성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 범주화 작업을 시켜서 과제에 익숙하게 한 다음 새로운 동물들을 제시해주고 금성 동물인지 토성 동물인지 판단하게 하였다. 이 때 관심 있게 본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범주화하는지와, 얼마나 빨리 범주 판단을 내리는지였다.



규칙에 의거한 범주화 능력을 측정하는 그림

제시된 동물들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었다. '정적 일치' 조건에서는 외관상으로도 연습 시행에서 보았던 동물과 비슷하고,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그 동물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동물들이 제시되었다. 반면 '부적 일치' 조건에서는 외관상 보기에는 연습 시행에서 본 동물과 유사하지만, 규칙을 적용하면 그 동물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동물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정적 일치 조건인

왼쪽 하단의 동물은 겉으로 보기에 위와 금성 동물과 유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규칙을 적용하여도 역시 금성 동물에 속한다. 그러나 부적 일치 조건인 오른쪽 하단의 동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의 금성 동물과 유사하지만 규칙을 적용하면 5개의 특징 중 2개만 만족하기 때문에 토성 동물에 해당한다.

자료 분석 결과, 정적 일치 조건의 경우 동양인, 동양계 미국인, 미국인 모두 범주 판단의 속도나 정확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적 일치 조건의 경우에는 동양인들이 판단 속도에서도 느렸을 뿐 아니라 정확률에 있어서도 다른 두 집단보다 2배나 더 많은 오류를 범했다. 부적 일치 조건의 경우에 규칙을 적용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표면적 유사성을 적용하면 틀린 판단을 내리게 됨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동양인들이 규칙을 적용하여 범주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의 두 주장들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 사자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호랑이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토끼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 2 사자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기린은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토끼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2가 1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소위 '다양성(diversity)' 혹은 '포함(coverage)'의 논리를 내세운다. 즉, 사자와 호랑이는 너무 비슷해서 토끼를 포함한 포유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지만, 사자와 기린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포유류를 잘 포괄한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아래의 두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지 생각해 보라.

- 1 사자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호랑이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포유류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 2 사자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기린은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포유류는 피 속에 효소 Q를 함유하고 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2가 1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대답한다. 이번에는 결론에 '포유류'라는 범주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 혹은 '포함'의 논리를 적용하기가 더 쉬워진다. 따라서 '다양성' 혹은 '포함'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앞의 판단 과제에서보다는 뒤의 판단 과제에서 더 쉬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1에서는 '포유류'라는 범주를 스스로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포유류'와 같은 자연 범주를 동양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첫 두 주장들을 놓고 자발적으로 '포유류'를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인철, 에드워드 스미스, 그리고 나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앞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주장들을 제시했다. 그 결과, 결론에 분명하게 포유류 같은 범주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 주장 2가 주장 1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한국 학생들에게서 훨씬 더 강하게 발견되었다. 미국 학생들은 결론에 '포유류'가 명시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장 2를 설득력 높은 주장으로 선택했다. 즉, 한국 학생들은 '포유류'라는 범주가 결론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이를 자발적으로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사물을 먼저 배우는 서양 아이들과 관계를 먼저 배우는 동양 아이들

왜 동양인들은 사물을 조직화할 때 범주보다는 관계성에 더 주목

할까? 고대 중국의 철학자들이 범주화에 그리 관심이 없었고 대신에 '부분-전체'라는 각도에서 세상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로 동양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관계성에 주목하도록 사회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화 요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범주'와 '관계'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범주는 명사에 의해 표현된다. 어떤 동물이 '곰'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동물의 특징적인 성질, 즉 커다란 몸집, 커다란 이빨과 발톱, 긴 털, 사나운 모습 등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곰'이라는 명칭을 그 특성들과 결합시키고 나면, 나중에 그런 특성을 가진 동물을 볼 때 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반대로 관계는 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타동사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두 사물과 그 사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무엇을 던진다 (to throw)'라는 동사에는 '손과 팔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을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동사는 명사보다 상대적으로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어렵다. 동사는 명사에 비해 대화의 맥락 가운데서 의미가 쉽게 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명사보다는 동사의 의미를 번역하기가 더 어렵다. 단순 명사들은 여러 언어에 걸쳐 그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만 동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지심리학

자인 디드레 겐트너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사는 대단히 유동적이지만 명사는 대체로 고정적이다.” 명사와 동사 사이의 이런 차이점을 알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동사보다는 명사를 빨리 습득한다’라는 겐트너의 연구 결과가 당연해 보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약 2개씩의 명사를 학습하는데 이는 동사를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학습 속도이다. 겐트너는 이러한 명사 편향이 당연히 문화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발달심리학자인 트와일라 타디프(Twila Tardif)와 그녀의 연구팀에 따르면, 동양의 어린이들은 명사와 동사를 거의 같은 속도로 학습하며 어떤 종류의 명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동사를 더 빠른 속도로 습득한다고 한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 이러한 극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동사는 영어와 기타 유럽 언어에서보다도 동양의 언어에서 지각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중국어나 일어,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위치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곳들이다. 반면에 영어에서는 동사가 대개 문장의 중간에 등장하기 때문에 지각적으로 그리 주목받지 못한다.

둘째, 서양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명사를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사물을 가리키고 그것의 이름과 특성을 가르쳐주는 것을 부모의 사명으로까지 여긴다. 그러나 동양의 부모들은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발달심리학자인 앤 퍼널드(Anne Fernald)와 히로미 모리

카와는 생후 6개월, 12개월, 19개월 된 아이가 있는 미국의 가정과 일본의 가정을 각각 방문해서 아이의 어머니들에게 그들이 준 비헤 간 장난감(개, 돼지, 자동차, 트럭)을 건네주면서 아이와 놀아보게 했다. 미국 어머니들은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사물의 이름(‘돼지’, ‘멍멍이’)을 2배 정도 더 많이 언급한 반면에, 일본 어머니들은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예절을 2배 더 언급했다. 미국 어머니들은 대개 “이건 차란다. 차 보이지? 차 좋아해? 와, 바퀴가 아주 멋있지!”와 같은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일본 어머니들은 “자, 여기봐, 부릉 부릉! 자, 차를 너한테 줄게. 이제 다시 엄마에게 줘봐. 옳지, 잘했어!”라는 식의 말들을 많이 했다. 이런 대화를 통하여, 미국의 어린이들은 세상을 ‘사물’로 이루어진 곳으로 배우고 일본의 어린이들은 세상을 ‘관계’로 이루어진 곳으로 배운다.

셋째,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작업은 어린이에게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범주화 능력을 배양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범주화 습관은 사물의 이름, 즉 명사를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범주화하는 서양인의 습관 때문에 그들의 아이는 명사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영어나 다른 유럽 언어에서 ‘속명(generic nouns, 어떤 범주 자체에 대한 이름)’은 문장 구조상 확연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a duck’, ‘the duck’, ‘the ducks’, ‘ducks’라는 표

현을 쓸 수 있는데, 이 중 마지막 표현은 속명에 해당한다. 즉, 오리 일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영어에서는 이처럼 '특정 오리 한 마리', '특정 오리 집단', '오리 일반' 등을 분명히 구분지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를 비롯한 동양어의 경우는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으며, 오로지 맥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발달심리학자인 수잔 겔먼(Susan Gelman)과 트와일라 타디프(Twila Tardiff)가 영어를 사용하는 어머니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를 비교 연구한 결과, 영어권 어머니들이 속명을 사용하는 빈도가 2배 높았다고 한다.

다섯째, 연구에 따르면 동양의 어린이들은 서양의 어린이들에 비해 훨씬 늦은 시기에 범주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발달심리언어학자인 앨리슨 고프닉(Alison Gopnik)과 최순지는 각각 한국어, 불어,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1살 중반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범주화를 하고, 사물의 이름을 대는 기술'이 불어나 영어권 아이들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서 늦게 발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서양의 아이들은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빨리 배우지만, 동양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명사 못지않게 동사도 빨리 배운다.

문화적 차이는 순전히 언어의 차이에 기인하는가?

그렇다면, 세상을 조직화할 때 명사를 주로 사용하느냐 동사를 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는 순전히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즉, 서양의 언어가 명사를 강조하고, 동양의 언어가 동사를 강조한다는 언어적 차이가 '범주화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책에 기술된 인지적 차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언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동서양의 인지적 차이와 언어적 차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 인도유럽계 언어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인다. 앞에서 이미 기술하였듯이 동양과 서양의 언어 습관은 사물을 가리키고 이름을 부르는 행위의 빈도, 문장 내에서의 동사의 위치, 속명의 빈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두 언어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서양의 언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속명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속명의 사용 빈도가 높다. 영어에서는 문장의 구조 자체로 어떤 명사가 범주 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범주의 특정 개체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다람쥐들이 나무 열매들을 먹는다(squirrels eat nuts)와 '이 다람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this squirrel is eating the nut)'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 오직 문맥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현대, 영어에서는 문장 구조 자체가 어떤 명사가 범주 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범주의 개체를 의미하는지를 구분시켜준다. 그리스어와 다른 인도 유럽계 언어에서는, 사물의 어떤 속성 자체에 'ness'라는 접미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 수 있다. 철학자인 데이비드 모저(David Moser)에 따르면, 이러한 용법 때문에 서양인들은 어떤 속성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여긴다. 플라톤은 "이러한 추상적인 속성 자체가 사물의 구체적인 속성보다 더 분명한 실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철학에서 이러한 '추상화'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동양의 언어는 '맥락'에 주로 의존한다. 동양어의 단어는 대개 다중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영어의 단어는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며, 게다가 영어 사용자들은 단어를 사용할 때 가능하면 맥락의 도움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언어인류학자인 셸리 브라이스 히스(Shirley Brice Heath)는 미국의 중산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의도적으로 단어를 맥락에서 떼어내어 탈맥락적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서양의 언어는 맥락보다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영어는 '주어'에 매우 집착한다. 심지어 '비가 온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도 'It is raining'이라고 해서 'It'을 주어로 쓸 정도이다. 그러나 동양의 언어는 '주체' 중심적이다.

동양의 언어 습관에서 문장의 첫 부분에는 대화의 초점이 되는 주체가 나온다. 예를 들어, '이곳은 스키 타기에 좋다'라는 뜻의 중국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This place, skiing is good'이 되듯이 대화의 초점이 되는 '이곳'이 문장의 첫 부분에 온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앞 장에서 언급한 '수중 장면을 보고 기억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영어를 사용하는 피험자들은 곧바로 사물을 기술하면서 기억을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 습관상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본 피험자들의 경우에는 '맥락'을 먼저 기술하는 것이 언어 습관상 더 적절한 것이다. 일본어에서도 맥락을 거론하지 않고 바로 사물에 대한 기술로부터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여겨진다.

서양에서 행위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동양인에게 행위란 다른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거나 주어진 상황에 자기가 적응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가 언어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령, 일본어나 중국어, 한국어에서는 '나(I)'를 표현하는 말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기술하는 말과 상사와의 관계에서 '나'를 기술하는 말이 다르다. 동양 언어에서 구체적인 맥락과 인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나'를 표현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행동의 원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 또한 문법에서 잘 나타난다. 서양의 언어는 행위자 중심적이다.

따라서 'He dropped it' 과 같은 표현을 쓰지만(스페인어는 예외), 동양의 언어는 'It fell from him' 혹은 단순히 'fell' 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사람에게 차를 더 청하는 상황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언어적 차이가 잘 드러난다. 중국인들은 '더 마실래?(Drink more?)' 라고 묻지만, 미국 사람들은 '차 더 할래?(More tea?)' 라고 묻는다. 중국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상황에서 마시고 있는 것은 분명 '차' 이기 때문에, 명사인 '차' 를 문장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미국인들은 차를 '마시고 있는 것' 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사인 'drink' 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언어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Edward Sapir)와 벤저민 워프(Benjamin Whorf)에 따르면, 언어 구조상의 차이는 사고 과정의 차이를 낳는다(이를 언어 상대성 가설이라고 한다-역주). 이 주장을 두고 언어학자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최근에는 수용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내가 수집한 자료들도 이 가설을 지지하는 듯하다.

앞에서 소개한 지리준와 장지용, 그리고 나의 연구를 다시 기억해보자.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피험자들에게 세 개의 단어(예, 팬더곰, 원숭이, 바나나)를 주고 그중 관련이 깊은 두 단어를 고르게 했다. 실험에 참여한 중국 학생들 중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었고 중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영어로 된 검사와

중국어로 된 검사에 모두 참여했다. 따라서 사피어-워프의 가설이 맞다면 양국의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중국인들의 경우에 검사를 영어로 받는지 중국어로 받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중언어자(bilingual)' 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동등 이중언어자(Coordinate bilingual)' 들은 제2국어를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배워, 그것을 한정된 맥락에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에 따라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복합 이중언어자(Compound bilingual)' 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제2국어를 배워 어떤 언어에서든 세상에 대한 표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중국이나 타이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동등 이중언어자이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복합 이중언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피어-워프 가설이 맞다면, 동등 이중언어자들은 문제를 영어로 제시하느냐 중국어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범주화의 패턴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복합 이중언어자들은 영어로 검사하든 중국어로 검사하든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연구 결과는 이 예상과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우선, 영어로 문제를 푼 미국인들과 중국어로 문제를 푼 중국인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인들은 관계에 기초한 범주화라는 공식적인 분류 범주에 기초해 범주화를 2배 정도 더 많이 하였고, 중국어로 문제를 푼 중국인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둘째, 중국 본토와 타이완의 중국인들은 영어와 중국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영어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들은 관계성에 기초한 범주화를 훨씬 약하게 보였다. 그들에게 영어를 쓰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전혀 다른 조직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참여자들의 패턴 또한 예상과 일치했다. 우선 그들의 반응은 평균적으로 중국과 타이완 사람들보다는 더 서양적이었다. 물론 그들에게서도 관계에 기초한 범주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매우 약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점은, 그들은 문제를 영어로 제시하든 중국어로 제시하든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자명하다.

첫째 언어의 효과와 무관한 문화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동등 이중언어자 중국인과 복합 이중언어자 중국인의 반응이 미국인의 반응과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자의 집단은 영어로 문제로 풀었을 때 덜 동양적인 패턴을 보였지만 여전히 미국인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보다 서구화된 사회에서의 복합 이중언어자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동양적인 패턴을 보였지만, 동등 이중언어자 중국인들(덜 서구적인 중국 본토나 타이완 출신)보다는 여전히 더 서구적인 패턴을 보였다.

둘째, 문화의 효과와는 독립적인 언어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등 이중언어자 중국인들의 반응이 영어와

중국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피어-워프 가설에 대한 우리의 매우 제한적인 답변은 (불과 소수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의견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언어 체계가 표상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인들은 세상을 '관계'로 파악하고 서양인들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사물'로 파악한다. 이러한 차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서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동양의 어린이들은 관계에 주목하도록 양육되고 서양의 어린이들은 사물과 그것들의 범주에 주목하도록 양육된다. 여기에 덧붙여, 언어의 문화 차이가 또한 일정 역할을 한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지식을 조직화하는 방법에만 그치지 않고 '논리적 추론' 방법에도 매우 상이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점은 6장에서 다룰 것이다.

|역자 후기|

저자인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나의 미국 유학 시절 지도교수이다. 내가 이 책을 번역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지만 그분은 한사코 말리셨다. 자신의 책이 한국어로 소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지만 한참 연구를 진행해야 할 내가 번역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매우 미안한 일이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제자를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에 대한 그분의 열정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다른 책 같았으면 당장에 그만두었겠지만, 결국 이렇게 강행하게 된 것은 이 책의 가치에 대한 내 자신의 강한 확신 때문이었다.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이미 많이 지적되어왔고 일반인들도 서양 문화와의 직간접 경험을 통하여 그 차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두 문화가 정확히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책만큼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감히 없어 보인다. 그만큼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에 관한 한 독보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몇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추측에 근거하여 그려낸 지도가 아니라, 현대 과학 정신에 근거한 엄밀한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제작된 '생각의 지도'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생각의 지도'는 또한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자'의 시각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왜 동반 자살이 많은지, 왜 지역에 근거한 갈등이 많은지, 그리고 한국의 신문 사설에는 왜 양비론적인 시각이 자주 등장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이해는 '비교'를 통하여 더 온전해질 수 있다.

이 책이 일반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씌어졌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두 문화의 사고 방식 차이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인 원서의 2장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번역본에서는 7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두 문화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한국어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음을 끝으로 밝히고자 한다. 원고를 꼼꼼히 읽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준 서울대학교 사회심리 연구실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윤세희 학생, 6장의 번역에 많은 도움을 준 미국 미시간대학의 차운아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을 결정하고 지원하여준 김영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4년 3월
서울대학교에서 최인철